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우리지사 관내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00교통소속 재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청구, 지급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우리지사에서는 산재 보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급여액을 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재해자가 최근 석방되어 다시 요양을 받게 됨에 따라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기에 위 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출당하려고 하니

위 재해자는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동안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부당이익의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A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어 많이 활용해 왔다. 공진단은 사탕노루의 음낭 배꼽에 있는 향신료를 취하여 그 속에 있는 분비 호르몬을 빚어 만든 것으로, 성 신경 쇠약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발육 부진에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공진단을 증상에 맞게 몇 가지로 나누어 여기에 보기에 보충제 보양제를 첨가하여 만든 것을 가미 공진단이라고 하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성신경이 허약한 경우에 쓰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혼자서만 끙끙 앓고 전문가의 도움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제까지 즐거운 인생을 포기하고 고개 숙인 남자로 살 것인가?

스스로 어렵다면 부끄러워 말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살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하다. 어깨를 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어떤 정력제나 보약보다 낫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 의정부수한방병원 (031-820-7200) www.ljherbangook

날마다 신혼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②

필자는 그분께 자신감을 가질 것과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이 심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스테미너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인체의 능력과 회복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다.

이 경우는 먼저, 원래는 잘 타고난 스테미너지만 나중에 관리를 잘못된 경우이기에 충격과 피로가 겹쳐 있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기 시작했다.

간장은 근육을 주관한다. 그러나 너무 피곤하거나 신경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장이 피곤해지고 그 피로가 계속 축적되면서 심리적인 충격과 불안감이 쌓여 오래가면 자연 신경근이 허약해진다. 성기의 근육이 위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간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사간제(舒肝劑)의 활용과 더불어 우황청심원을 함께 복용해 한 후 두 번째 치료로 기를 보하고 양기를 만들어 주는 보기조양제(補氣滋陽劑)를 사용하였더니 얼마 안가서 과거 이상의 스테미너를 발휘하게 되었다. 정말 원인이 치료된 케이스였다.

이외에도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발기 불능이나 조루가 생기거나 해서 한의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스테미너가 허약해서 성관계를 할 때 위축이 되거나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에 하초의 성신경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어 주어 근본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내의 면역 능력을 키워 주는 방법으로 예로부터 공진단을 만들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안과 과장 신재용



가 날리거나 황사가 있을 때 외출을 피하는 것이나, 바깥으로 나갈 때는 안약을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또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 눈과의 접촉을 가능한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귀가 후에는 옷을 털고 집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외출이나 계절과 무관해 보이는 경우, 집먼지진드기, 곰팡이를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먼지가 일지 않도록 매일 철저히 청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바람이 강한 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므로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 물걸레로 집안을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다.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콘택트렌즈가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하게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산소 투과성 하드 렌즈로 바꾸거나 소프트 렌즈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렌즈를 평소보다 더 자주 세척한다.

예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꽃가루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②

각막염을 동반하거나, 충혈이 심하여 환자가 못 견딜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면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혈관 수축제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안약은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약물투여 외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은 냉압법 즉, 얼음수건이나 찬물로 눈을 차게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된다. 자주 재발되거나 증상이 심한 사람은 냉방장치를 가동해서 주위

환경을 덥지 않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금물로 눈을 씻는 사람도 있는데 소금물을 이용해 눈을 씻으면 오히려 눈을 자극하므로 피한다. 안구가 쉽게 건조해지는 사람은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주는 것이 좋다.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은 콘택트렌즈가 알레르기 증상을 더 심하게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산소 투과성 하드 렌즈로 바꾸거나 소프트 렌즈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렌즈를 평소보다 더 자주 세척한다.

예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에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꽃가루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저는 甲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위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협력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하여, 은행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잔

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도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그 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

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후, 그러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 마련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귀하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아내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

Q 결혼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항상 남편이 성관계를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였는데 요즘은 남편과의 잠자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행여 저를 천박한 여자로 여길까봐 먼저 말도 못하고 성관계시 흥분도 꺼리고 표현하기가 힘들습니다. 이런 성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A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욕구를 자제합니다. 또한 원치 않아도 남편의 요구에 따르는 아내들은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이 다스리면서 체면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성이 개방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 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들은 한결같이 낯은 요조숙녀, 밤에는 성적 교묘에 능숙한 요부가 되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때론 그렇지 못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기 힘들다는 은근한 협박까지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글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 여자들도 성을 즐기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항상 성의 주체는 남자여야하고 여자는 단지 그 성욕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성적 기교만을 강조하면서 여성에게 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성적 기쁨을 얻지 못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의 요구를 거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거부했다간 그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 10년이 넘어도 이렇다 할 성적 만족 못 느끼면서 불감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적 불만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성적 장애가 생기는 건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만 채우기에 급급한 남편, 어떻게 하면 자신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아내, 진정 사랑하는 부부라면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기보다는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부부의 성관계에서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즐거움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내 역시 자신도 성을 즐길 수 있다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의 즐거움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습되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좀더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냈습니다. 그 뒤 1년 후 사업을 하는 장남이 급전이 필요하여 어머니의 재산(은행예금통장·주식)과 장남의 재산(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A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재산 관리 및 처분이 불분하므로 민법은 상속

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의 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등록 등을 한 이후에 재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세법은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 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급전이 필요한 장남을 위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는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례를 들면, 상속재산으로 둘러싼 상속인간의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이므로, 재분할로 인해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6개월 이내(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재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 시 협의분할은 신중히 하셔야 하며, 만약 재협의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최고급 합지생산전문업체 장원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
바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한솔드라이합지 전문

각종 싸바리 BOX 합지 1천톤 항시 보유



보유시설 시스템

- 자동합지기
 - 자동도무송기
 - 수가공전문
 - 반자동 도무송기
 - 자동접착기 등
- ※합지1천톤 항시보유

